

4년 만에 재개된 신입생 OT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딛다



신입생 OT 3부 순서로 나온 천마응원단에게 신입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16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이 진행되었다. 2019년도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이전 OT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학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과가 어우러져 학우들끼리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마주한 학우들에게는 긴장한 모습과 설렘이 공존했다. 유한준 학우(스포츠산업 23)는 ‘합격하고 학교에 처음 와보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실기를 치르러 왔을 때와는 달리,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학교가 따뜻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설레는 마음을 나타냈다. 이번 OT를 총괄한 총학생회장 임기성 학우(사회체육 19)는 “내가 신입생이었던 시절이 생각나고 선배로서 신입생분들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학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시간표를 보며 안내하고, 학생 자치기구인 방송국과 학보사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학 생활을 안내하였다. 동아리, 장학금 등 신입생들이 학교에 다니며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알찬 구성이었다.

점심 식사 후 2부에서는 제45대 라운 총학생회가 준비한 캠퍼스 투어 및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였지만, 학생들의 표정만큼은 밝았다. 이들은 오전에 편성한 조로 나뉘어 재학생 조장과 함께 캠퍼스를 살펴보고, 도서관 앞에 설치된 마스코트인 ‘한마’와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또 투어 중간마다 운동장과 하키

장, 태권도장 등 학교 곳곳에서 동아리가 주관하는 다양한 미니게임도 참여하였다. 중앙동아리 ‘예상’에서 줄다리기 게임 진행을 맡은 윤진서 학우(운동건강관리 22)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좋다. 또 학우분들의 반응이 워낙 좋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게임에 참여한 학우들도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데 게임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답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다. 태권도 시범단 가온, 댄스 동아리 지상만무, 그리고 봉우리 밴드와 천마응원단까지 4개의 동아리가 신입생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가온의 17대 주장인 홍승표 학우(태권도 20)는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가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좋은 기운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그의 말처럼 동아리 공연에는 좋은 기운이 넘쳐났다. 학우들은 “처음 경험했으나 너무 재밌었다.”,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는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다. 공연 초반에만 해도 종일 고된 일정으로 지쳐 보이는 학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대 앞까지 달려 나와 힘차게 뛰어놀았다. 역시 ‘한국체대’다운 마무리였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1면에서 계속 “너무 오고 싶었던 학교, 꿈만 같다”

3월 2일,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부생 587명, 대학원생 251명으로 총 838명이 참석하였다.

입학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과 교수들 소개하고, 총장의 입학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환영사 및 축사와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기가 시작되어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가 자리에 참석하였다. 또 학과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와 내빈들이 자리하며 입학식을 빛내주었다.

신입생 대표 선서는 여서정 학우(체육 23)와 김민서 학우(체육 23)가 맡았다. 기계체조 국가대표이자 ‘여흥철 선수의 딸’로 어릴 적부터 주목받았던 여서정 학우는 입학 소감으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아버지처럼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4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과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빙상부로

입학한 김민서 학우는 “너무 오고 싶었던 학교라 좋고 꿈만 같다.”라고 소감을 밝힌 후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올림픽에 출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안용규 총장은 신입생 선서에 앞서 한국체육대학교 23학년 학우들의 입학식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역사상 최초의 졸업생 출신 총장으로서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전에 당연하게 해왔던 일을 진행하지 못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벽찬 소감을 말했다. 또 “오랜 인연의 힘으로 오늘 만나게 되었다. 인연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학교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부실한 총학생회칙 변한다? 개정 TF팀 창립

2월 20일, 본교 총학생회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제3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각 학과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본교 상시 의결기구이자 최고 운영기구이다. 본회의에서는 총학생회칙 개정 TF팀 설립 및 신입생 OT 평가와 다가오는 학과별 MT 등 교내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3차 정기회의의 화두는 ‘총학생회칙 개정 TF팀 설립’이다. 중운위는 지난 1월 30일, 2차 정기회의에서 중앙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현재 중운위가 재정 관련 감사를 맡고 있으나 이는 의결기구인 중운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의 생각이다. 임 회장은 “더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과 학생자치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운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 기구가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총학생회칙에는 재정 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재정 관련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칙 전반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 부실한 실정이다. 임 회장은 “재정 운용 기준이 확실치 않은 상태라면, 재정 감

사기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회칙 개정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감사 기구보다 부실한 총학생회칙의 변화가 우선”이라며 임 회장은 중운위 위원장 자격으로 ‘총학생회칙 개정 TF팀(이하 TF팀)’ 창설안을 발표했다. 중운위에 참석한 운영진은 TF팀 창설안에 전원 동의했다.

TF팀은 총학생회 지대웅 교육정책국장(사회체육 19)이 이끌 예정이며 각 학과당 1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TF팀 구성원 모집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3월 중순이 되면 TF팀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TF팀은 재정 관련 뿐만 아니라 수정이 필요한 학칙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직전 공표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중운위는 학칙 개정이 마무리 된 이후 중앙감사위원회 설립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는 감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4차 중운위 정기회의는 다음 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229@naver.com

잊지 못할 헌신, 정년퇴임식

2023년 2월 20일, 합동강의실에서 정년을 맞은 윤재량(체육), 김경숙(특수체육교육), 유병열(스포츠청소년지도) 세 교수의 정년 퇴임식이 거행됐다.

윤재량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20년 간 근무 후 2006년 본교에 임용되었다. 17년 간 교직 생활을 한 윤 교수는 한국체대 체육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다. 안용규 총장은 “윤재량 교수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윤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윤재량 교수는 “한국체대와의 만남은 내 생애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1990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본교에 임용된 김경숙 교수는 32년 간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김 교수는 육상 국가대표 출신으로 특수체육교육과 학과장을 맡았다. 나이가 아시아특수체육학회장을 역임하며 특수체육발전을 위해 힘썼고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제54회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 특수체육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 교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며 퇴임의 아쉬움을 전했다.



좌측부터 윤재량 교수, 윤 교수 배우자, 김경숙 교수, 김 교수 배우자, 안용규 총장, 유병열 교수, 유 교수 배우자.

다. “그러나 80%는 내려놓았고 앞으로 퇴임해도 즐겁게 살겠다”며 교직 생활을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병열 교수는 본교 1회 졸업생 출신 교수다. 졸업 후 조교생활을 하였으며 1987년 한양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35년 간 교직생활을 하였다. 유병열 교수는 체육학과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유 교수는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로 이전 후 학과 학술제를 창설했다.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학술제는 해마다 열리며 22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유 교수는 “77년 본교의 출발을 함께한 내가

이렇게 정년 교수로 퇴임한다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 인생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체대가 너무 자랑스럽고 오래 기억될 것”이라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용규 총장은 “세 교수님의 헌신 덕분에 한국체대가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함과 동시에 “세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정년 교수 퇴임식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229@naver.com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 구성”

2022 한국체육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포럼 개최

2월 20일 오후 2시에 합동강의실에서 2022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이 개최되었다.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은 당일 현장 참여와 더불어 유튜브 한국체육대학교 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은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발표로 진행되었다. 윤석훈 기획처장은 “우수 사례는 2022년에 진행된 사업 중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부문에서 특수체육교육과 노형규 학과장 ‘찾아가는 장애인 레저스포츠’,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박선영 부교수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멘토링’과 ‘Youth-led 글로벌 챌린지’, 대학원 특수체육교육과 김민창 학술연구교수 ‘장애인 스포츠과학 지원인력 양성’ 순서로 발표했다. 이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문에서 체육학과 윤진호 조교수 ‘해양정화 오션케어 프로그램’, 인재개발원 김혜원 상담심리사 ‘KNSU-Safety-Net Week’, 성광제 특임교수 ‘4차산업 AR/VR 기술을 통한 학생 체력 향상’ 순서로 발표하였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우수사례로 발표하게 된 특수체육교육과 노형규 학과장은 “작년에 이어 우수 사례로 뽑혀서 영광”이라며 소

감을 밝혔다. 또한 “쉽게 얻기 어려운 경험들을 학생들이 학교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기쁨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2022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기획처장은 “국립대학의 성장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상생하는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성과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에 진행한 성과포럼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국립학교육성사업(사업비 15억)과 대학혁신사업(사업비 19억)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작년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중심으로 성과포럼이 개최되어 관심도가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사업비 규모도 커지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도 많이 구성할 수 있었고 사업별 만족도 결과도 좋았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윤 기획처장은 “내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작년까지 사업이 정해져 사업 진행에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 구성원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우리 대학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며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서진 수습기자 psj3158gh@naver.com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에 명예박사 수여

쥬태인/아시아산악연맹의 이인정 회장이 2월 1일 본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인정 회장은 과거 16년 연속 대한체육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인 최초로 국제산악연맹 명예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인 체육장학금’을 설립하여 지난 33년간 614명의 청소년에게 후원하고 2011 청송세계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및 2013 목포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에 기여하는 등 국내 체육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인정 회장은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대

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하고 올림픽 메달 126개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명문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오늘 명예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니 감사와 영광을 넘어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고 말했다.

안용규 총장은 “이제 이인정 박사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체대 동문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영원히 박사님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인정 회장은 2022년 체육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 있다.

송현일 수습기자 clilck21@naver.com



아시아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